

05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ESTABLISH A
SUSTAINABLE
SUPPLY CHAIN

추진목표

- 협력회사 안심품질 등급 향상 협력회사 528개사 (누적) (~2023)
- 협력회사 기술지원 1,376건(누적) (~2023)
- 협력회사 금융지원 2,332억원(누적) (~2023)
- 협력회사 CSR 역량 강화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 해외 협력회사에 대한 고도화 컨설팅 운영 및 신규 발굴 육성

LG생활건강은 협력회사 CSR 평가 및 안심품질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공급망 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가 CSR 관련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협력회사 현황 (단위: 개사)

전체 협력회사		725
1차	협력회사	640
	핵심 협력회사	93
2차 이상	협력회사	85
	핵심 협력회사	38

*LG생활건강 별도 기준

기업이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환경,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공급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거래관계를 포함한 모든 기업 활동에서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윤리강령을 엄수하며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CSR 평가 및 관리

LG생활건강은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회사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근로자 인권 관리, 환경 책임 등에 관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굴,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CSR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회사가 CSR 관련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CSR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LG생활건강은 사업부별, 유형별 구매금액 상위 협력회사를 비롯하여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력회사, 대체 불가능한 협력회사를 핵심 협력회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LG생활건강은 원료, 부자재,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협력회사의 선정과 기존 협력회사의 유지 여부 판단 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협력회사 평가의 경우, 안심품질인증평가와 CSR 평가를 진행하며 안심품질평가 점수 1,000점 만점 중 550점 이상, CSR 점수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존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안심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며, World Best 등급을 목표로 매년 등급 향상을 위해 LG생활건강과 협력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CSR 평가항목은 종합평가에서 분리하여 합격수준(75점)을 설정하여 해당 수준 이상이 되지 않을 시 경고 조치를 취합니다. 해당 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매 규정을 개정하여 협력회사의 CSR 평가 비중을 강화하였습니다.

협력회사 CSR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LG생활건강은 협력회사 CSR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CSR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CSR 평가 가이드라인은 배경 및 목적, 항목 설명, 수행 가이드, 관련 법규,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활용하여 협력회사 CSR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안심품질인증제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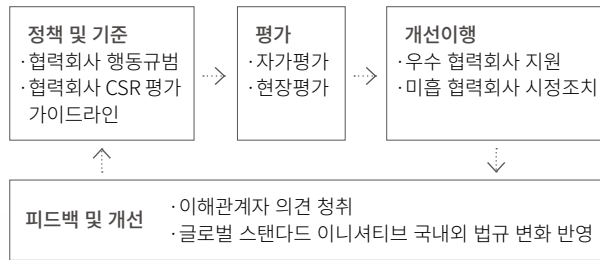
LG생활건강은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법규 수준보다 높은 품질 기준을 적용한 안심품질인증제도를 개발하였습니다. 안심품질인증제도는 법규 준수, 유해물질 안전성, 제품의 효능·성능, 내용물 안정성, 부자재 품질, 사용 편리성의 6대 안심품질 영역에서 4M(Man, Material, Machine, Method) 기준의 작업 표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핵심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신규 협력회사 등록 시에도 적용하여 확대 운영 중입니다.

협력회사 관리 방향

	품질(안전)	납기	PDS ¹⁾ 성과	신용평가
우선순위 관리항목	유해물질 법규, 가이드 위반 등 품질 안전 요소	최초 입고 요청일 기준 납기 준수	아이디어, 기술 제안 등 협업 시너지	신용평가결과 기반 재무안 전성
ESG 관점	기술력/지속가능성/현장관리			
	안심품질 등급	CSR 평균 수준 향상 및 관리 범위 확대		
	품질문제 예방을 위한 '협력회사 안심 품질인증제도' 적용 범위 확대	환경을 비롯해 노동인권, 윤리 수준, 안전 등 협력회사 CSR 현황 전반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협력사의 CSR 경쟁력 강화		

1) PDS(Performance Distribution System): 거래 중이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협력회사
사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제안하고 접수, 검토하는 협력회사 제안 관리 프로그램

협력회사 CSR 관리 프로세스



협력회사 CSR 평가 실행

LG생활건강은 모든 협력회사에 대해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
인권, 환경, 안전, 공정한 거래, 개인정보보호 등 4개 분야 28개 항목
에 대한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구매시스템 웹사이트
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협력회사가 CSR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준수하도록 매년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
가 연간 일정 계획에 따라 협력회사를 방문하여 잠재적 CSR 리스
크를 점검하고, 해당 현장평가를 협력회사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리
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총 207개 협
력회사에 대해 CSR 종합평가 및 CSR 온라인평가를 진행하였습니
다. 평가 결과, 인권, 환경안전 등과 관련한 미흡 사항이 3개 협력회
사에서 발견되어 해당 협력회사에 개선 권고 및 개선계획 수립 등
을 진행하였습니다.

CSR 제3자 점검 실시

2019년에는 연간 진행되는 현장평가 일정과는 별도로 주요 협력회사
중 10개사를 선정하여 제3자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CSR 평가의 전문
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CSR과 관련된 더욱 다양한 정보와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제3자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장점검에서 소방시설
관리, 환경 및 안전 관리 조직,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이 주요 미흡 사항
으로 확인되었으며, 점검 결과는 모든 협력회사에 결과보고서로 제공하
였습니다. 협력회사는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잠
재 및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협력회사 관리 범위
를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력회사 CSR 평가 결과 (단위: 개사)

	구분	2019년
1차(Tier 1)	평가 협력회사	207
	- 자가평가 ²⁾	207
	- 현장평가 ³⁾	63
	- 제3자 점검 ⁴⁾	10
	CSR 리스크가 높은 협력회사 ⁵⁾	5
2차 이상	평가 협력회사	21
	CSR 리스크가 높은 협력회사	1

*LG생활건강 별도 기준

2) 자가평가: 구매시스템을 통한 평가

3) 현장평가: 구매팀 등에서 진행한 실사 평가

4) 제3자 점검: 외부 기관에서 진행한 실사 평가

5) CSR 리스크가 높은 협력회사: 종합평가 내에 잠재적 CSR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지배구
조 2.5%, 환경경영 17.5%, 안전보건 20.0%, 윤리경영 7.5%, 노동인권 37.5%, 협력회사
관리 10.0%, 지역사회 2.5%, 정보보호 2.5%로 구성된 47개 문항의 CSR 체크리스트를 활
용하고 있으며, CSR 평가항목은 종합평가에서 분리하여 합격수준(75점)을 설정하여 해당
수준 이상이 되지 않을 시 거래 자체가 되지 않도록 구매 규정을 개정하여 협력회사의 CSR
평가 비중을 강화하고자 함

협력회사 관련 성과 및 목표

	안심품질 등급 향상	기술지원 건수	금융지원 금액
2017	협력회사 안심품질인증 체계 확보	174건	322.5억원
2018	협력회사 수 : 94개사	360건 (누적)	677.8억원 (누적)
2019	협력회사 수(누적): 192개사	557건 (누적)	992.1억원 (누적)
2023 목표	협력회사 수(누적): 528개사	1,376건 (누적, 2017~)	2,332억원 (누적, 2017~)

CASE 공급망 내 인권 보호 활동

팜오일(Palm Oil)은 세정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방산(Fatty Acid)과 같은 직접 팜 유래 원료부터, 유화제로 사용되는 2~3차 가공 원료인 글리세린
을 용매로 사용하는 팜유 유도체까지 화장품 및 생활용품 공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이러한 팜오일 생산으로 인한 노동
자의 인권 침해와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글로벌 NGO 및 기업이 참여하여 설립한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에 울산 및 온산 사업장은 2014년 원료 저장에서부터 생산, 제품 저장, 출하까지의 과정에서 RSPO 분리
(Segregation) 인증을 최초로 획득, 2019년에는 재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팜오일 생산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 사항이 발견된 공급망과는 즉각적
으로 거래를 중지하고 있습니다.